

하악 치열의 원심이동을 통한 3급 부정교합의 비수술 치료

허 욱 / 아너스교정과치과의원

3급 부정교합은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부정교합입니다.

성장기 환자의 경우, 악정형 장치 (orthopedic appliance) 를 통한 성장 조절을 동반하여, 골격 부조화 및 치열의 부정교합의 완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에 제한이 생깁니다. 주어진 골격 내에서 부정교합을 개선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정치료 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을 동반한 3급 부정교합에서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술 3급 부정교합 교정치료에 있어 하악치열의 원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악 구치부의 원심이동을 도모하는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하악의 경우에는 그 선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교정용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구치부 원심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 구치부가 이동함에 따라 치근이 교정용 미니임플란트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니임플란트의 위치를 옮겨 재식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악 구치부의 협측 치조골은 외사선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부위가 있어, 교정용 미니임플란트를 교합면에 수직에 가깝게 식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악 제1대구치 또는 제2대구치의 협측 치조골에, 교합평면과 수직에 가깝도록 식립된 미니임플란트는 하악대구치의 원심이동시에도 치근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악치열의 원심이동을 위한 교정용 미니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및 방법에 관하여 논하고, 식립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교정력의 벡터(vector)와 회전 중심(center of rotation)과의 관계를 통해, 부정교합에 따라 원하는 치아이동을 얻기 위한 미니임플란트 식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3급 비수술 교정치료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전치부의 치열 보상 (dental compensation)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전임의, 임상강사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치과교정학 전공)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외래교수
- * 현, 아너스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서울대입구) 원장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회장